



“실력이 쌓여 본질이 된다” 주력

광주학생들의 '다양한 실력' 쌓기를 위해 2년 반 동안 달려온 이정선 시교육감이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다양성, 책임, 공정, 미래, 상상 등 다섯 가지 가치를 담아 혁신적 포용교육 추진에 정진한다.

특히 '실력이 쌓여 본질이 된다, 우리는 미래로 간다'는 기치 아래 4대 영역, 16대 중점사업을 펼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공교육 프로젝트 등 기초학문 강화
올해 가장 눈에 띄는 교육정책은 '잡지는 교실을 깨우는 공교육 프로젝트'다. 말 그대로 지루한 수업을 버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조는 우리 아이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할 재미있는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25년 '수학이 즐거운 학교 수학 온다 학교', '아심한 노벨+온'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탐구·활동 중심 수학교육 확대, 미래형 과학 탐구 기반 조성, 체험·놀이 중심 수학·과학 축제 운영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고, 꾸준히 기초 과학교육에 투자해 최종적으로 광주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은 독서교육 프로젝트는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업그레이드해 운영한다. 기존 독서교육의 공간이 학교에 한정됐던 것을 넘어 가정에서부터 책을 읽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았던 스타디오펀 '365-스터디룸'에 이어 중학교에 진로탐색 공간 '365-커리어룸'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인성교육' 실천
시교육청이 또 하나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은 인성교육이다. 어려운 이웃을 지나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협력해 실천 중심 인성교육에 나선다.

먼저 Wee클래스-Wee센터-Wee스쿨-Wee다터-랜선Wee클래스-병영형 Wee센터로 연결되는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마음의 상처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지원 거점센터를 신설하고 '학생 마음바우처'를 운영해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마음도 살뜰히 챙긴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 행정직, 교육공무직원 등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 교육활동 보호기반을 마련한다.

이 밖에 학생들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꿈드림+' 사업은 대상을 확대하고, 대학 진학비용 등을 지원하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을 활성화한다. 학생 무상 교통비 지원,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 학교 운영 등은 처음으로 시도한다.

◇다문화교육·글로벌리더 역량도도
글로벌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정책은 올해 더욱 내실화한다. 교실을 벗어나 배움의 범위를 동네→팔도→세계로 확대해 다양한 체험·교류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글로벌리더 세계 한 바퀴'는 지난해와 동일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직접 접하며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국제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방문 국가를 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원 역량 강화 ▲미래환경 구축 ▲스마트기기 보급 등을 단계별로 준비해왔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4개 학교에 미래형 교실 'AI팩토리'를 구축했으며, 올해는 43개교에 추가 구축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디지털도구를 활용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에듀테크, AI코스웨어 등을 통해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에는 초·중등학교 정보교육 의무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공간 SW미래채움센터가 개관했다. 이곳은 AI·XR체험,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형 디지털 체험공간'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쉽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하는 한편 교사들이 수업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광주형 수업 플랫폼

●광주시교육청

다양성·책임·공정·미래·상생 가치 담아 포용교육 정진
기초 과학 집중...다문화·미래인재·생태전환 등 활성화

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꾸준히 소통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배경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교육과정과 다문화교육을 연계하고 맞춤형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 한국어학급 개설 등을 통해 적응을 돕는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역사·평화통일·독도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치 참여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정치 학교 운영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마을학교, 온마을 이음학교 등 지역 교육공동체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 시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대학과도 협력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형 인재육성 '속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형 인재를 키우는 정책도 꼼꼼하게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폼 '다모다'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춘 정책도 시행한다. 우선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실천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탄소중립 연구학교와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지역사회 시민단체·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생태전환교육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2년 반 동안 광주교육이라는 토양에 발을 갈고 씨를 뿌리며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새롭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례를 공유하는 '광주 학생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최근 광주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 광주교육 주요 업무 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지역·세계 공생 글로벌 교육 실현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벌 교육으로 'K-에듀'를 선도하고 있는 전남교육이 2025년 새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지난 2022년 7월 '전남교육 대전환'을 약속하며 출범한 직선 4기 전남교육은 2년 6개월 동안 미래를 열어갈 토대를 다지고, 교육의 기본을 회복하며 큰 변화를 만들어왔다.

4년차를 맞는 2025년에는 학교 현장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쥔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것은 변방의 전남교육을 'K-에듀의 선두주자' 반열에 올려놓았다.

◇교육의 기본 '공부하는 학교' 구현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을사년에도 '공부하는 학교'를 목표로 나아간다.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첫 번째 정책과제는 '교육의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공부의 바탕이 되는 '독서인문교육'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전국 최초로 독서인문교육 전담팀을 설치해 ▲책으로 여는 아침 ▲나도작가 프로젝트 ▲독서인문학교 등을 운영했다. 2025년에는 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글로벌 독서인문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드높아진 독서 열기를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로 확장해 책 읽는 학교 정책을 더욱 내실화한다.

이 곳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한강 작가가 보여준 평화·공생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독서, 토론, 글쓰기 수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가까이했던 글로벌 인재들의 독서습관, 저서 등을 탐구하고 지역

문화유산과 연계한 인문교육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공부하고 존중받는 교실, '공존교실'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157교(초등 74교·중등 83교)에 211명의 지원 강사를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4교(초등 102교·중등 82교)로 확대 운영한다.

◇'2030 미래교실' 전남교육청사진
전남교육청은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를 통해 변방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지역 중심 글로벌 교육'을 이끄는 K-에듀의 선두 주자로 도약했다.

박람회와 거둔 성과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2030 교실'이다. 전남 교사와 교육전문직원 400여명이 1년 넘게 준비해 선보인 2030 교실은 불과 5년 후 학교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교육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25년에는 유아 45개, 초·중등 각 40개씩 총 125개의 2030 교실을 조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030 교실에는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와의 실시간 연계 수업부터 다산 정약용의 발자취를 좇는 인문교 수업까지 혁신적인 수업모델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전국에서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중언어 교육'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이중언어교사 양성,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다문화가정 맞춤형 번역서비스 등 이중언어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크게 확대했다.

이주배경 학생이 찾아오는 글로벌교육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가칭)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도 가시화했다. 이 학교는 2025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이주배경 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산업체 취업 및 지역정주를 지원한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는 다문화인재가 초·중·고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다문화인재전형도 신설했다.

◇공생·협력
지역과 세계, 디지털 기술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교육, 지역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도 주목된다.

더불어 갈수록 쇠락하는 전남의 농산어촌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힘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전남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전남의(義)' 교육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역사·평화·인권·통일의 가치를 배우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의(義)' 정신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전남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급한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2025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지급하도록 보건

교육생태계 구축

지역과 세계, 디지털 기술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교육, 지역과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들도 주목된다.

더불어 갈수록 쇠락하는 전남의 농산어촌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의 힘을 모으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전남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전남의(義)' 교육도 활발하게 추진한다. 역사·평화·인권·통일의 가치를 배우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섰던 '의(義)' 정신을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과거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지난해 3월부터 전남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급한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2025년부터 지역에 상관없이 전남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월 10만원씩 확대·지급하도록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앞으로 기초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 중·고등학생 지급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전남의 모든 학생이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현장 중심' 교육정책 주력
도교육청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몰입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학교 업무 최적화' 장·단기 5대 과제를 마련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학교업무 최적화 단기 5대 과제는 ▲행정업무 총량 감축 ▲행사·회의 운영 개선 ▲업무 DB 활성화 ▲학교예산 자율성 확대 ▲교육행정기관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업무경감 지원을 위해 '지능형 JNE넷' 구축을 서두르고, 교무행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시간을 교육 활동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또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민원응대체계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역할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상호 존중·신뢰를 기반으로 한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2024 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에 참석한 관객들이 초등 미래교실을 참관하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지난해 열린 2024 대한민국 글로벌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서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